

술밭도서관 독서의 달 추천도서목록 (성인)

주제: 행복, 마음 / ※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※ 본 자료를 무단 복제, 편집, 재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 <p>빨강 머리 앤, 행복은 내 안에 있어</p> <p>조유미 더모던 2020</p> <p>[솔밭] 일반자료실 818-24</p>	 <p>엄마가 말투를 바꾸면 아이는 행복해집니다</p> <p>박미진 메이트북스 2019</p> <p>[솔밭] 강의실 솔밭C종합 598.1-9</p>
<p>루시 M. 몽고메리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투영해 만들어낸 소설 《빨강 머리 앤》의 주인공 앤 설리는 엉뚱한 상상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고,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밝고 당당한 모습으로 시대를 초월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.</p>	<p>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접근하기 쉬운 심리이론뿐만 아니라 부모가 흔히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을 묘사해 어떻게 아이에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려주며, 아이와 대화하는 실전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문장 같은 적절한 예시도 제시하고 있다.</p>
 <p>나를 웃게 하는 것들만 곁에 두고 싶다</p> <p>마담리키나 허밍버드 2021</p> <p>[솔밭] 일반자료실 818-69</p>	 <p>집을 고치며 마음도 고칩니다</p> <p>정재은 앤의서재 2020</p> <p>[솔밭] 일반자료실 818-27</p>
<p>섬세한 그림으로 사랑 받는 일러스트레이터 마담리키나의 첫 번째 에세이,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별것 아니어도 미소를 짓고,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는 순간이 우울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녀는 웃는 순간을 보존하고 기억하기로 다짐했다.</p>	<p>보다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, 우리는 늘 갈등한다. 이 책은 작가가 우연히 낡고 오래된, 작은 집을 만나 고쳐 짓게 되면서 스스로를 온전히 만나고, 삶이 담긴 집을 누리며, 낙다운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백하게 담은 에세이다.</p>
 <p>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</p> <p>김재식 위즈덤하우스 2021</p> <p>[솔밭] 일반자료실 818-61</p>	 <p>배려의 말들</p> <p>류승연 유유 2020</p> <p>[솔밭] 일반자료실 818-49</p>
<p>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좋은 사람일 순 없다. 남한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나의 소중함을 알고, 내 곁의 좋은 사람들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된다. 바쁜 일상에 치여 스스로를 돌보는 일을 등한시해는 나 자신에게,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바치는 책.</p>	<p>이 책은 배려가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놓는다.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타인의 입장에 서 보는 것이라 무엇이든, 선하지만 배려 없는 행동, 단호하지만 충분히 배려한 말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짚어 생각할 기회를 마련해 준다.</p>
 <p>걱정을 잘라드립니다</p> <p>탈 벤 사하르 청림출판 2019</p> <p>[솔밭] 일반자료실 189-6</p>	 <p>귀찮지만 행복해 불까</p> <p>권남희 상상 2020</p> <p>[솔밭] 일반자료실 818-26</p>
<p>2년에 걸친 이발소 대화를 담은 이 책은 성장에 대하여, 너그름에 대하여, 침묵에 대하여, 치유에 대하여 등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실용적 지혜로 가득하다. 저자는 시간을 들여 한 꼭지를 읽은 뒤 생각하는 시간을 갖길 권한다.</p>	<p>주방과 거실 사이, 서재라고 부르기엔 작은 책상이 눈에 선하다. 열네 살짜리 시주 나무가 맴돌고, 가끔 상쾌한 말을 던지는 딸 정하가 다가와 나란히 앉기도 하는 곳. 일과 삶을 고루 사랑해온 이만의 심지가 이 작은 책에서 기분 좋게 만져진다.</p>
 <p>너는 나의 시절이다</p> <p>정지우 포르체 2021</p> <p>[솔밭] 일반자료실 814.7-44</p>	 <p>이제 나부터 돌보기로 해요</p> <p>서윤진 글레마 2019</p> <p>[솔밭] 강의실 솔밭C종합 818-72</p>
<p>평범한 일상에서 소소하게 마주하는 사랑의 감정부터 삶의 낭떠러지와도 같은 절박한 순간에 우리를 끌어올렸던 사랑의 역할까지, 우리 삶의 전반을 관통하며 눈부시게 삶을 비추는, 사랑의 여러 모양에 대한 고찰을 전한다.</p>	<p>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혼들고, 일상을 어지럽히고, 삶을 공허하게 만들 때, 이 책에 담긴 '자기 사랑 언어'를 자신에게 들려주자. 말의 강함이 당신을 돌보아줄 것입니다. 상처를 아물게 하고 세상이 돌게 해 줄 것이다.</p>